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pm
- 주일 학교 Sunday School / Sunday 11:3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Bible Study / Sunday 11:00 am
- 금요 찬양예배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Early Morning Devotion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주간 성경 공부 Bible Study / Tuesday 8:00 pm (zoom)
- 일대일 제자 훈련 Discipleship Class / Monday 10:00 a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

건강한 믿음 성장의 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경배와 찬양: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 말씀

창세기 11:27-32 / (성경 구약 14쪽)

"유종의 미"를 향하여

말씀 선포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찬송 324장 허락하신 새 땅에
결단의 기도 (통일 찬송 382장)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헌 금 최선운 / 박진성 집사

봉헌 찬송 213장 "나의 보화 드리니"(4절)

삶과 세상 속으로

*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찬송 620장)

* 축복 기도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금요 찬양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 사무엘상 6:1-18

"언약궤가 돌아오다!"

❖ 묵상

성령의 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혀'가 변화됩니다.

거짓을 말하던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되고, 뒷담화하던 혀가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수없이 상처를 입히던 혀가 겸손과 온유로 덧입혀져 위로와 공감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 대부분 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자들의 혀를 새롭게 하셨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도 불의 혀같은 성령의 불이 내 혀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사역과 일터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말, 공감의 말, 격려의 말을 부지런히 훈련해야겠습니다.

오늘의기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지 않으셨다면, 제 혀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죽이는 말을 입에 담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내주하신 후 제 혀를 서서히 바꾸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혀를 통하여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의 제단 숯불로 제 혀에 남아있는 최악된 말들을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공훈에서 흘러나오는 선한 말들만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합니다.

삶이 힘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고해라고 말하는데요,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고통을 전제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고통스러워진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함께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 은혜의 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지금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의 때, 낙심의 때, 절망의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내가 더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 유성현 목사, [은혜의 선물] 중에서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역 / 행사

7월 복음의 증인된 달

2023년 하반기 말씀과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2023 주제 말씀 :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2023 표어 : 성장하는 교회

1.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2. **성반기 결산 제직회** 예배 전 상반기 제직회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섬깁시다.

3. **상반기 결산 특별기도**

(1) 새벽기도 6월 24일(토)부터 7월 8일(토)까지 가집니다.

월-금(오전 6:00am) / 토 (7:00am)

(2) 저녁 기도회(Zoom Room 456 973 3245 / PW 1234567)

월-금 (8:30-9:00pm) / 주제: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받은 칭찬과 책망

4. **설립 기념 주일** 7월 9일은 교회 설립의 주일입니다.

23일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7월 사역

상반기 결산새벽기도(6/24-7/8)

상반기 결산 제직회(7/2)

만남/나눔 주간(2-8)

설립감사주일/Oikos 친교(9)

성장/성숙 주간(9-15)

사역친교/Oikos 사역(16)

소금/빛 된 주간(16-22)

설립감사주일/사역친교(23)

선교 주간(23-29) & 선교 주일(30)

생일 축하

오정은(14)

이광호(14)

구은강(28)

말씀 개요

창세기 11:27-32 / “유종의 미”를 향하여

기도제목

테라는 아픔과 실패를 딛고 전화위복의 결정으로 소망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지만 중도에 주저앉고, 고향도 아니고, 축복의 땅도 아닌 하란에서 인생을 마친다.
 험난한 길을 가며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유종의 미” 를 경험하자.

말씀 요약

오늘날에도 삶의 터전을 옮겨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이민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4천 년 전 테라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민의 길을 출발했다. 셈족의 터전이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를 떠나, 함축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행했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아주 특이한 결정이었다.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세 아들 중 하란은 젊은 나이에 죽고, 아브람은 결혼한 후 아이가 없고, 나홀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당대의 문화에서는 신이 내린 저주였다. 메소포타미아 토지의 소출이 줄었고, 목축업을 하던 아브람은 풍부한 목초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주의 결단은 앞날을 내다보는 정확한 판단이었다.

가정의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땅, 이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테라는 야벳 족속의 서쪽 경계에서 주저앉는다. 개척자의 길을 출발했지만, 중간에 멈추어, 테라는 고향도 아니고, 새로운 땅도 아닌 하란에서 생을 마친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저앉거나 불평하며 신세 한탄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힘들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유종의 미" 를 향하여 나아가는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테라처럼 하란에 머물지는 말고, 일단 출발한 후에는 험난한 길이라도 목적지까지 계속 갈 각오를 다져야 한다.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자. 크던 작던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자.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맡게 된다.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1. 2023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이 열매맺도록
2.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성훈련하도록
3. 섬기는 목회자의 강건함과 영적 능력을 위해
4.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졸업/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학업과 미래의 꿈을 가지도록
6. Oikos 가정사역을 통해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 사역지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특히, 새로운 선교/구제협력을 시작하는 튀르키예 박진란 선교사와 사역을 위해

예배 섬김이

7월 2일 구 민 집사
9일 최내권 집사

주일 기도 인도

16일 박진성 집사
23일 김윤경 집사

주일 헌금 위원

7월 2일 최선윤 / 박진성 집사
9일 박진성 / 최선윤 집사
16일 오정은 / 구 민 집사
23일 구 민 / 오정은 집사

주일 안내

7월 김훈태 집사
8월 구 민 집사

성경공부 / 기도 모임

주 일 오전 11:00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약속
월요일 오전 10:00 교회 성장
화요일 저녁 8:00 인물 성경공부/Zoom

섬기는 사역자

지도 목사(Lead Pastor) 김성배 목사
찬양 인도자(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교육전도사(Youth Pastor) Jacob Kim 전도사